

호스피스를 심는 사람

황영미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총무



한 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 하반기부터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총무를 역임하게 된

황영미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본인에게 송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과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 한해는 협회에서 주관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전국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제6회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와 ‘기관대표자 모임’,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범 국민 걷기대회’ 등 이 모든 행사들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기관 대표자님과 협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호스피스에 대한 사랑과 열정, 헌신으로 몸담아 오셨던 분들의 발자취와 업적을 뒤돌아 볼 때,

‘호스피스’를 주님사랑의 실천과 사명으로 여기며, 조건 없이 외길을 묵묵하게 정진해 오셨던 분들의 해안과 열정이 있었기에, 죽음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대상자와 그의 가족뿐 만 아니라 돌보는 모든 이들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 할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었으며, 총체적

돌봄에 다가갈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형성 및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호스피스의 정착을 위해 노력·질주하신 호스피스 선배님들의 열정은 오늘날 한국 호스피스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의술(延命醫術)’ 대신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최대한 베푸는 봉사 활동인 호스피스.

최초 강릉 갈바리의 작은 마리아 수녀회의 수도자로부터 시작된 한국 호스피스.

우리나라 호스피스의 역사는 어림잡아 40여년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호스피스 보급과 돌봄의 절대 필요성을 감지했던 한국가톨릭단체들의 지속적인 호스피스 활동으로 말미암아 어느덧 유·소년기를 지나 왕성한 활동, 정체성의 확립, 조화의 추구로 안정을 찾아가는 청년기로 접어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호스피스의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신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의 정착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스피스 대상자에게 더욱 가깝고도 실질적인 도움이 골고루 필요한 이 시점이야말로 호스피스의 인식과 홍보 차원을 넘어 우리 한국의 호스피스의 정체성을 찾고 더욱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

한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11월 25일 청계광장에서의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범국민 걷기대회’의 일치된 호스피스인들의 모습은 남녀노소, 빈부격차와 무관하게 모두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호스피스의 정신과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 지오노의 문학작품 “나무를 심은 사람”이 생각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여러 해 동안 별거벗은 자신의 마을에 묵묵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양치기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겸손하고 헌신적인 주인공 양치기는 배운 것은 없지만 자신의 일에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험벗은 대지에 생명을 불어 넣고 황폐화된 불모지를 되살리게 됨으로써 이 마을을 기피했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자연과 더불어 유익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모지가 서서히 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자신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 양치기”와 죽음이 곧 새 삶의 잉태이며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죽음을 위해 묵묵히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끊임없이 정진하는 “호스피스 인”의 모습….

웬지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고 헌신적 자세, 이타적인 행동 속에서 내 이웃과 더불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무를 심은 사람”과 처럼 “호스피스를 심는 사람”의 자세로 한 걸음씩 나아가간다면 한국 호스피스의 미래는 밝고 더욱 성숙되리라 기대됩니다.

어느덧 2006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 협회 회원님들의 평가를 받고, 내년도 운영방향을 세우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귀하고도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동참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관심과 함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결속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무는 한해 좋은 결실 맺으시고 다가올 2007년 “정해년(丁亥年)”에는 귀 기관과 회원님들께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어 더욱 건승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